

人
스토리
여덟 번째
유기미자

살아보니, 봄

이야기·그리기: 유기미자 듣기 쓰기: 박나연·백임돈

“
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길고 긴 고난의 인생을
겨울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.
하지만 요즘의 어머니 얼굴에 맺힌 흐릿한 미소는
그야말로 봄입니다.
그 미소에서 저는 편안함과 따듯함을 느낍니다.
봄바람 같은 그 미소에, 저도 웃습니다.

”



사외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스토토리 여덟 번째 유기미자

살아보니, 봄

이야기·그리기: 유기미자 듣기 쓰기: 박나연·백임돈





